

세계도시동향

헤드라인뉴스	1	뉴욕을 미국 내 최다 전기차 보유 도시정부로	뉴욕
산업·경제	3	지자체들, 민관협력사업으로 시청사 등 건립 검토	독일
행재정·교육	4	2020년부터 언어·수리 최소기준 미달 땀 고교 졸업 못해	뉴사우스웨일즈
환경·안전	6	에너지절약 상담사가 가정 방문해 무료 조언	도쿄
	8	15개 주요기업과 '탄소배출 감축' 기후협약 체결	뮌헨
도시계획·주택	9	'다양한 사회계층 융합' 참여주거형 공동주택 시범사업	낭트
뉴스인사이드	11	언론보도 분석을 통한 세계 주요 도시 정책 이슈와 동향	뉴욕 외

뉴욕을 미국 내 최다 전기차 보유 도시정부로

2025년까지 3,000대 확보...온실가스 대폭 절감 기대

미국 뉴욕시 / 환경·안전

- 미국 뉴욕시는 OneNYC 계획(One New York: The Plan for a Strong and Just City, 하나의 뉴욕: 강력하고 완전한 도시를 위한 계획) 중 하나로 공무차량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공무차량을 전기자동차로 대체하는 ‘NYC Clean Fleet’ 계획을 2015년 12월 수립한 후 이를 업데이트하여 2017년까지 긴급 공무차량을 제외한 모든 신규 차량을 친환경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으로 구매하겠다고 2016년 9월 발표

- 배경
 - 뉴욕시는 OneNYC 계획에서 205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80% 감축할 것을 명시
 - 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주요 부문으로 건물, 에너지 공급, 교통, 고체 폐기물을 명시

- ‘NYC Clean Fleet’의 주요 내용
 - 뉴욕시는 이 계획에서 뉴욕 시민을 위해 서비스를 고품질로 제공하고 시의 공무차량에 청정연료를 사용하겠다고 밝힘.
 - 시는 현재 27,152대의 유류연료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디젤(60%)과 휘발유(40%) 차량이 약 1억 리터의 탄소배출 연료를 사용
 - 시는 2천 대의 경차를 전기자동차로 교체하여 현재의 휘발유 소비를 20% 줄일 계획이며, 이는 연간 946만 리터의 휘발유 소비를 대체하는 것임.
 - 2025년까지 시 공용차량의 온실가스 배출을 9% 줄일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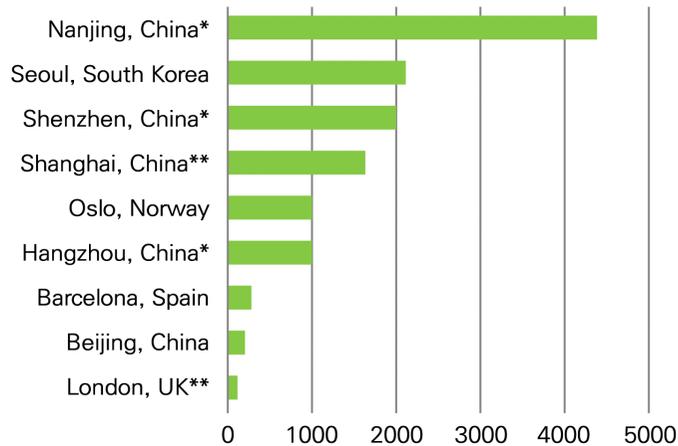
- 업데이트한 ‘NYC Clean Fleet’의 주요 내용
 - 시는 기존 계획을 업데이트하여 2017년 말까지 1천 대의 공무용 전기차를 확보하고, 2025년까지 2천 대의 전기차를 추가하여 미국 내 도시 중 가장 많은 전기차를 확보할 예정

- 이 계획을 통해 시는 공무차량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2020년까지는 50%를, 2035년까지는 80% 감축할 예정
- 이는 65MW급 석탄 발전소를 해체하거나 6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음.

MUNICIPAL EV TARGETS IN LARGE U.S. CITIES⁹



MUNICIPAL EV FLEETS IN LARGE GLOBAL CITIES¹⁰



* Includes Taxis and/or Buses

** Figure Reflects "Energy-Efficient" or "Ultra Low Emissions" Vehicles

미국 대도시 전기차 확보 계획과 글로벌 대도시의 전기차 보유 현황

<http://www1.nyc.gov/office-of-the-mayor/news/759-16/climate-week-mayor-de-blasio-nyc-fleet-now-operates-more-500-electric-vehicles>

<http://www1.nyc.gov/assets/sustainability/downloads/pdf/publications/NYC%20Clean%20Fleet.pdf>

산업·경제

지자체들, 민관협력사업으로 시청사 등 건립 검토

독일 / 산업·경제

- 독일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최근 시청사, 학교, 시립의료원의 신축 및 보수를 민관협력사업(PPP)으로 시행 또는 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
- 시청사 보수
 - 크레펠트(Krefeld)시는 문화재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시청사의 보수작업을 PPP 방식으로 시행할 것을 검토 중
 - 시는 PPP 방식을 통해 보수하는 것이 재정적인 면에서 신축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
 - 시는 보수비용을 6,300만 유로(790억 원)로 추산하고 있으며, 민간투자자는 30년 동안 시청사의 관리·운영권을 보유
- 시청사 신축
 - 메켄하임(Meckenheim)시는 시청사와 강당의 신축을 PPP 방식으로 시행
 - 총 사업비는 1,850만 유로(232억 원)이며, 2017년 4월 완공 예정
- 학교 신축
 - 뷔어젤렌(Würselen)시는 학교 교사 신축사업을 번들링으로 추진할 예정
 - 민간투자자는 교사 신축 및 학교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30년 동안 관리·운영권을 보유
- 시립의료원 신축
 - 칼스루에(Karlsruhe)시는 시립의료원을 철거한 후 PPP 방식으로 신축할 예정
 - 민간투자자는 의료센터와 지하주차장의 설계와 건설을 담당하고 60년간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보유

<https://www.partnerschaften-deutschland.de/versand-blickpunkt/2016/blickpunkt-oepp-oktober-2016/>

행재정·교육

2020년부터 언어·수리 최소기준 미달 땀 고교 졸업 못해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 행재정·교육

-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는 학교 교육의 질 개선과 학생들의 수업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이 단계별로 달성해야 할 교과별 수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언어 및 수리 전략(Literacy and Numeracy Strategy 2017~2020)’을 발표

- 배경
 - 주정부는 2012년부터 ‘언어 및 수리 4개년 실행계획’에 따라 초기 학령기 학생 중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을 집중 지원하여 소정의 성과를 거둠.
 - 2016년 일제고사 결과 NSW주 9학년생 중 읽기분야에서 24%, 수리분야에서 20%가 전국 최소기준에 미달
 - 주정부는 2019년까지 전국 일제고사의 읽기분야와 수리분야에서 상위 30%에 포진하는 학생의 비율을 8% 늘리기 위해 새로운 계획을 수립

- 주요 내용
 - 초기 학령기 조기 개입
 - 언어와 수리 분야에서 최소한의 학업성취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치원부터 2학년까지 진단테스트를 하여 별도의 차별화된 교육과 조기개입을 향후 4년 동안 실시

 - 명시적 교육과 더 나은 진단 테스트
 - 주정부는 학생들의 언어와 수리 능력 실태 및 발전 경과를 진단하고 확인할 수 있는 도구를 교사들에게 제공할 예정
 - 교사는 이에 기초하여 학생들의 언어와 수리 분야의 욕구를 확인하고 맞춤형 개입 및 지원전략을 수립

- 중고생들의 언어 및 수리 지원 강화
 - 현재 8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2020년부터 언어와 수리 영역에서 최소기준에 미달하는 학생은 졸업장을 받지 못하고 수료장만 받게 됨.
 - 초등학교 1학년 때 실시하는 학력진단 테스트를 7학년 때도 시행
 - 중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단 테스트 실시와 효과적인 활용방법에 대한 교육 시행

- 교사 지망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제공
 -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생들의 언어 및 수리 능력이 높지 않으며, 이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양과 질이 대학별로 상당한 격차가 있음.
 - 따라서 교사 지망생은 교생실습 전에 언어 및 수리 능력 테스트를 받아야 하며 기준치를 웃도는 학생들에게만 교생실습 기회를 부여
 - 기준치는 호주 전체 인구의 언어 및 수리 능력의 상위 30% 수준

- 투자와 노력에 대한 평가
 - 교사는 정기적으로 학부모에게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알려야 함.
 - 기존 4개년 계획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유치원부터 2학년까지 학업 성취에 대한 종단연구를 수행
 - 이번 계획은 독립 연구기관이 평가할 예정

<https://www.nsw.gov.au/media-releases-premier/nsw-government-invests-340m-quality-teach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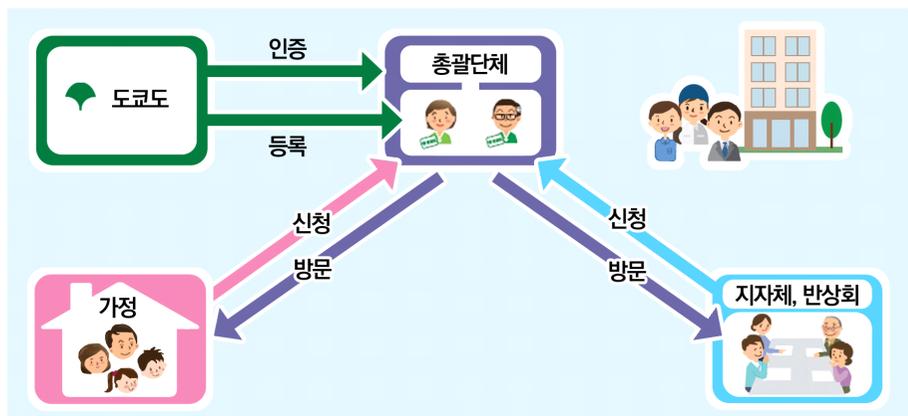
<https://www.det.nsw.edu.au/media/downloads/about-us/literacy-numeracy/literacy-and-numeracy-strategy>

환경·안전

에너지절약 상담사가 가정 방문해 무료 조언

일본 도쿄都 / 환경·안전

- 일본 도쿄都는 ‘가정에너지 절약 상담사’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가정의 에너지 절약과 절전 대책에 관한 조언을 무료로 해주는 ‘가정에너지 절약 상담제도(家庭の省エネアドバイザー制度)’를 2011년 여름부터 시행
 - 이 제도는 도쿄도에 등록된 총괄단체에서 시행
- 주요 내용
 - 총괄단체에는 주택조합, 가스회사, 주택건설협회 등이 있으며, 각 총괄단체는 기관별 특색을 살린 에너지 절약에 대한 조언을 제공
 - ‘가정에너지 절약 상담사’는 총괄단체의 직원으로 에너지 절약에 관한 지식이 있으며 도쿄도가 시행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고, ‘도쿄도 인증 가정에너지 절약 상담사’로 등록 후 활동
 - 총괄단체는 각종 강좌나 이벤트 등에서 에너지 절약 방안을 교육하고 교육용 책자를 제작·배포함.
 - 상담은 개인신청 또는 지자체나 반상회 등의 신청에 따라 실시



‘가정에너지 절약 상담제도’의 개념도

- 총괄단체에서 실시하는 에너지 절약 조언 내용
 - 각 총괄단체의 업무에 바탕을 둔 에너지 절약
 - 가정에 필요한 에너지 절약 방향에 대한 조언
 - 주택의 에너지 절약방안(계절별 창문의 보온, 방한 방법 등)
 - 즉시 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대책 제안

<https://www.tokyo-co2down.jp/individual/eco/home/>

http://www.kankyo.metro.tokyo.jp/climate/home/diagnostic_system.html

15개 주요기업과 ‘탄소배출 감축’ 기후협약 체결

독일 뮌헨市 / 환경·안전

- 독일 뮌헨市는 기후문제를 지역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탄소배출량을 2017년 까지 4만 톤 이상 감축하는 “뮌헨 경제 기후협약(Klimapakt Münchner Wirtschaft)”을 뮌헨시 소재 15개 주요 기업과 2016년 7월 체결

- 주요 내용
 - 뮌헨시의 준비 및 지원내용
 - 기후협약 이행을 위한 세부 조치로 기업별 에너지소비 절감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여 감축기준을 수립
 - 기업의 에너지 절약 최적화 작업을 위한 기술적 지원과 기업 간 기후보호 기술 관련 정보교환을 지원할 예정
 - 기업들의 실천 경험과 정보 공유를 위한 워크숍 개최
 - 프로젝트 진행 중에도 수시로 기업들의 기후보호조치 참여 내용을 보도 자료로 발표하고, 프로젝트 종료 후 기업들의 기여도를 담은 출판물을 발간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할 예정

 - 참여 기업의 의무
 - 기업들은 감축기준에 따라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들을 프로젝트 종료 예정인 2017년 말까지 시행
 - 도시 내 기후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에 참여

 - 참여 기업의 혜택
 - 뮌헨시가 발주하는 환경 관련 프로젝트에 입찰 시 소정의 가산점 부여

<https://www.muenchen.de/rathaus/wirtschaft/nachhaltig-oeko/klimapakt-muenchner-wirtschaft.html>

<http://www.muenchen.de/aktuell/2016-07/klimapakt-muenchen-unternehmen.html>

도시계획·주택

‘다양한 사회계층 융합’ 참여주거형 공동주택 시범사업

프랑스 낭트市 / 도시계획·주택

- 프랑스 낭트市는 사회계층 간 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프랑스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지역 내 다양한 사회계층이 함께 살며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참여주거형 (Habitat participatif) 공동주택 시범사업을 시행

- 주요 내용
 - 다양한 사회계층의 시민이 공동의 목표(예: 친환경 마을, 에너지 절약 마을) 아래 공동주택을 건설하며 해당 공동체의 콘셉트 및 운영방향을 자주적으로 결정
 - 공동주택의 옥상이나 정원 등은 공용으로 사용되며 공동체 활성화 및 유대감 형성의 장으로 활용
 - 낭트시는 참여주거형 공동주택을 장려하기 위해 계획부터 실행까지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조언을 해줄 전문가를 파견할 예정
 - 프랑스 참여주거형 제도의 혁신적인 전개와 개선책 모색을 위해 2010년 구성된 RNCHPI(Réseau national des collectivités pour l’habitat participatif)에 가입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 긴밀히 공조할 예정

- 시범운영
 - 현재 낭트 시내 8개 지역과 시 외곽 2개 지역에서 실험적으로 운영
 - 시는 대상지역 선정을 위해 지역별 사회계층 분포도 및 거주자들의 연령층 등을 사전 조사
 - 선정된 지역의 택지 선정부터 건축까지 모든 행·재정과 관련된 문제들을 적극 지원하고, 각 공동체의 결속력 및 사회적 유대감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http://www.nantes.fr/home/ville-de-nantes/developpement-durable/logement-habitat/lhabitat-participatif.html>

<http://www.nantes.fr/home/actualites/ville-de-nantes/urbanisme/2016/habitat-participatif.html>

<http://www.slate.fr/story/94095/habitat-participatif>

언론보도 분석을 통한 세계 주요 도시 정책 이슈와 동향

세계 주요 도시 정책 이슈와 동향

- 미국 뉴욕市
 - 영국 런던市
 - 중국 상하이市
 - 싱가포르 싱가포르市
-

세계 주요 도시 정책 이슈와 동향

뉴욕

- 2015년 뉴욕시민 연평균 소득 전년보다 5.1% 증가 2016.09.16
- 뉴욕시는 2015년 뉴욕시 빈곤시민이 2014년보다 3.8%(약 35,000명) 감소하였고, 뉴욕시민의 연평균 소득이 약 6,200만 원으로 2014년보다 5.1% 증가하였다고 발표함. 뉴욕시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약 16,000원으로 인상하고, 340만 명의 근로자에게 병가급여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고자 노력함.

※ 2014년 대비 2015년 뉴욕시 자치구별 임금 인상률: 브루클린 5.3%, 퀸즈 4.0%, 스테튼 아일랜드 4.0%, 맨해튼 3.9%, 브롱크스 1.8% 증가

<http://www1.nyc.gov/office-of-the-mayor/news/740-16/mayor-de-blasio-65-000-new-yorkers-lifted-out-poverty-workers-wages-rise>

- 온실가스 배출량 줄이기 ‘그린빌딩 프로그램’ 시행 2016.09.20
- 뉴욕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그린빌딩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함. 2025년까지 뉴욕시 내 약 3,800개의 건축물 개조를 지원하여 온실가스 배출 절감과 약 1,0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함.

<http://www1.nyc.gov/office-of-the-mayor/news/753-16/climate-week-de-blasio-administration-early-progress-green-building-programs>

- 건축물 옥상에 태양열 전지판 설치 2016.09.26
- 뉴욕시는 온실가스 배출을 80% 절감하고 친환경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옥상에 태양열 전지판을 설치하기로 함.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100메가와트를 생산하고, 2030년에는 1,000메가와트를 생산하여 25만 가구에 신재생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http://www1.nyc.gov/office-of-the-mayor/news/769-16/mayor-de-blasio-completion-3-000-solar-panels-the-brooklyn-navy-yard>

-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 공공·민간 파트너십 계획 발표 2016.09.29
- 뉴욕시는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을 위한 공공·민간 파트너십 계획을 발표함. 공공과 민간은 뉴욕시 내 서비스가 부족한 12개 지역의 주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신체 활동

기회 증대, 건강한 먹거리 제공, 공공안전 개선 등을 위한 투자를 함께하기로 함.

<http://www1.nyc.gov/office-of-the-mayor/news/784-16/mayor-de-blasio-building-healthy-communities->

런 던

- '30m 이내 구간 무료 이용' 호퍼 버스요금제 시행 2016.09.05
- 런던시는 시민과 여행객에게 저렴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호퍼 버스요금제를 9월 12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30m 이내 구간은 무료 버스 이용이 가능하며, 1시간 이내로 버스와 전차 간의 무료 환승도 가능함.

<https://www.london.gov.uk/press-releases/mayoral/hopper-bus-fare-begins>

- 중심지역 전기버스 운행해 대기환경 개선 추진 2016.09.09
- 런던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목표로 중심지역에서 전기버스를 운행하기로 함. 전기버스 운영을 통해 질소산화물(NO_x) 제거,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의 40% 절감, 진동 및 소음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함.

<https://www.london.gov.uk/press-releases/mayoral/mayor-unveils-first-fully-electric-bus-routes>

- 2020년부터 트럭 시내운행 금지 2016.09.30
- 런던시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해 런던시 내에서의 트럭 운행을 금지하는 계획을 발표함. 런던교통청은 시내에서 운행 가능한 트럭을 0부터 5까지 등급을 분류하고, 2020년부터 런던시 내의 트럭 운행을 제한하기로 함.

<https://www.london.gov.uk/press-releases/mayoral/new-measures-to-rid-london-of-dangerous-lorries>

상 하 이

- 전기자동차 임대매장 500m마다 설치 2016.09.08
- 상하이시는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나면서 이들에게 이용 편의를 주기 위해 전기자동차 임대매장 수를 확대하기로 함. 전기자동차 임대매장을 500m마다 설치하고, 임대 전기자동차도 늘리기로 함.

<http://www.shanghai.gov.cn/shanghai/node27118/node27818/u22ai84024.html>

- 컨테이너 수송 확대 등 글로벌 운송 허브 구축 2016.09.09
- 상하이시는 지속적으로 글로벌 운송 허브를 실현하기 위하여 컨테이너 수송을 늘리고, 운송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함.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에 따라 선박과 철도, 트럭을 연계한 운송시스템 및 운송서비스, 선박 금융 등을 개발하여 글로벌 운송 허브를 지속해서 유지하고자 함. 자동화 컨테이너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항 서비스 계획 등도 수립할 계획임.

<http://www.shanghai.gov.cn/shanghai/node27118/node27818/u22ai84038.html>

- 홍차오 중심업무지구에 국내외 고급 인재 유치 방안 마련 2016.09.22
- 상하이시는 홍차오 중심업무지구에 국내외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한 서비스와 정책 개선 방안을 발표함. 국내외 고급인재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기업 인큐베이터 시설과 신생 인턴기업의 작업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로 함. 또한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해 체류허가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함.

<http://www.shanghai.gov.cn/shanghai/node27118/node27818/u22ai84137.html>

- 이달부터 환경오염 벌금 1억 6천만 원까지 부과 2016.09.29
- 상하이시는 환경보호를 위해 환경보호 규칙을 개정하고 10월 1일부터 환경오염 벌금을 약 1억 6천만 원까지 부과하기로 함. 환경오염을 건설사업, 대기오염, 수질오염, 고형 폐기물, 방사선 등 5개 부문으로 분류하여 부문별 규칙을 개정하고 처벌을 강화함.

<http://www.shanghai.gov.cn/shanghai/node27118/node27818/u22ai84214.html>

싱가포르

- 2017년부터 대중교통 요금 5.7% 인하 2016.09.14
- 싱가포르 대중교통위원회는 2017년부터 대중교통 요금을 5.7% 인하하기로 함. 대중교통 요금 인하는 에너지 가격 하향 추세에 따른 것으로, 지속적으로 대중교통 요금과 서비스를 개선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로 함.

<https://www.gov.sg/news/content/today-online-public-transport-fares-could-be-cut-by-as-much-as-57>

- 로봇점원·증강현실 활용해 소매산업 발전 도모 2016.09.16
- 전자상거래의 꾸준한 증가로 소매산업 경제가 악화되면서 싱가포르시는 소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발전 방안을 발표함. 2020년까지 점원 없는 상점, 로봇 점원, 증강현실 등의 기술 개발을 통해 소매산업의 발전을 도모함.

<https://www.gov.sg/news/content/today-online-robots-augmented-reality-among-ideas-to-transform-retail-industry>

- 당뇨병 환자 데이터 통합·관리로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2016.09.24
- 싱가포르 보건부는 당뇨병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함. 여러 의료기관에 분포되어 있는 당뇨병 환자들의 데이터를 통합·관리하여 환자에게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질병을 지속해서 관리하고 예방하도록 함.

<https://www.gov.sg/news/content/channel-news-asia---singapore-to-develop-national-diabetes-database>

「세계 주요 도시 정책이슈와 동향」은 뉴욕, 런던, 상하이, 싱가포르 등 세계 주요 대도시 보도자료에 발표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소개합니다. 서울시 정책 개발 및 이슈 발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정책의 선도성을 지니거나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췌하였습니다.

편집담당자 : 기획조정본부 심아름 연구원